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토요기도회:**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

**ㆍ나라주일:** 오늘은 예배 후 나라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.

**ㆍ유럽코스타:** 2월18(화)-21(금) Hotel Seeblick “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”

참가-손교훈, 이영환, 서연주, 석혜진

**ㆍ섬김이**(제직, 나라지기, 교사) **세미나:** 2월 22일(토) 14시-18시 Teestube

‘행복한 교회, 행복한 일꾼’–신정 목사(광양대광교회), 토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음.

**ㆍ재의 수요일:** 2월 26일, 사순절 시작

**ㆍBible12 제9강 ‘중간기 및 예수시대’:** 3월1일 주일

**ㆍ기부금증명서 발부:** 백능현 집사

**ㆍ선교사편지:** 유초등부 어린이와 청년들이 12명의 선교사님들께 편지를 써 보냅니다.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사랑으로 후원해 주세요.

**ㆍ생일:** 구가희, 조수빈, 조유나, Wolfgang Zwingelberg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창29:21-35 월/창30:1-24 화/창30:25-43 수/창31:1-16

목/창31:17-35 금/창31:36-55 토/창32:1-12 일/창32:13-32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73독, 이근봉 목사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2월 16일** | **2월 23일** | **3월 1일** | **3월 8일** |
| **예배기도** | 서민규 | 박희영 | 단주현 | 김아영 |
| **말씀일기** | 양귀남 | 정규선 | 오지훈 | 허지은 |
| **안내위원** | 정기승, 예배부 | | 신형만, 예배부 | |
| **헌금위원** | 강일구, 박종희 | | 김종권, 박희영 | |
| **애찬봉사** | 나라주일 | 밥상 하나 | 밥상 둘 | 밥상 셋 |

**37-7호 2020년 2월 16일**



**“너는 내 것이라”** (사43:1)

주일예배: 12:00 Fliedner Saal

유초등부예배: 12:00 Teestube

청소년부예배: 12:00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Teestube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63-139 2225

**교육/ 이영환 전도사** HP. 0163-143 2804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...………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……..……  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 인도자 | 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0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 | 다함께 | 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 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 71번 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 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09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.…… | 다함께 |  |
| 기도/Gebet …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찬양/Cho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서민규 집사  양귀남 교우  찬 양 대 | 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...…………… 요한7:37-52 …..…....…………….... | 인 도 자 |  |
| .설교/Predigt…………………… **’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’** …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 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 526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.………  합심기도/Gebet 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  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  다 함 께  다 함 께 |  |
| 교제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………............. | 다함께 | 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 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  |
| 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 |  |  |

◀ **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창25장 ‘희극같은 비극, 비극같은 희극’** ▶

“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”(1)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를 이야기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. 모자의 위장 전술에 속아 장자 에서에게 할 축복을 차자 야곱에게 다 해 버린 그, 그런데 별미를 안 먹으면 자식 축복 못하는가? 잘 보지 못한 게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, 이삭의 ‘별미타령’(4,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)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.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, 붉은 팥죽도 오늘 별미 고기도… 결국 먹는 게 또 문제였다.

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지혜로웠던 리브가였지만, 자식 키우는 일 만큼은 누구도 장담 못할 일. 첫째 아들을 편애하는 남편 못지 않게, 둘째를 싸고 도는 엄마 리브가였다. 물론 해산 무렵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도 자식 잘 키운 좋은 엄마였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. 둘째 야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‘거짓과 위장’ 전술 밖에는 없었나? 철저히 어미의 지시에 따라 아비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“마마보이 야곱”,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밖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나?

열심히 사냥하고 별미를 준비해 온 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접하고, “심히 크게 떨”(33)고 있는 아비 이삭에게 이제라도 복을 받기 위해 울며 하소연한다. 사실 에서의 소원은 상식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. “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?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”(34, 38). 아니 더 나아가 무효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. 하지만 이삭은 이 점에서 이상하리만치 융통성이 없다. “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”(33).

성경은 잘 이해 못할 이야기 속에, 축복과 관련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 같다. 첫째는 ‘말의 위력’이다. 한 번 뱉은 말은 그대로 그 효과를 발한다는 거. 어리석어 보이는 이삭이 무서운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셈이다. 둘째는 ‘축복의 현장성’이다. 사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“에서”라는 이름의 아들을 축복한 것이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축복의 현장에서 이삭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에게 현실화된다는 거다.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입술로 가족을, 친구를, 성도를,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지 다시금 깨닫는다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-성경 그 현장에서 그 음성 듣는 자가 결국 복 받는 자 아닌가. 아버지, 날마다 당신의 음성 듣게 하소서.